

민주 ‘극우 한국당’ 프레임 공세

홍영표 “5·18 망언 등 국민저항 직면할 것”

“전대 구호 ‘다함께 전두환시대’로 바뀌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부정 논란 등을 소재로 한국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5·18과 탄핵 등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데 대한 격앙된 반응인 동시에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각종 의혹을 쟁점화하는 한국당을 ‘극우 정당’ 프레임으로 묶아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한국당 2·27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막말과 논란성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국당 전대에 따른 ‘컨벤션쇼’를 최소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

서 “5·18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망언 의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당이 국민적 분노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건 역사의 퇴행을 넘어 극우의 길로 가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5·18 망언과 탄핵 부정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망언 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극우의 길을 계속 고집하면 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장은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한국당 ‘당대표 후보 되기’는 극한직업”이라며 “관

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발언 내용이 5·18을 모욕하고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격정이 많이 된다”고 꼬집었다.

한 수석부장은 “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다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함께 다시 박근혜로’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꼬집은 데 이어 “전두환과 박근혜라는 흑역사를 잇는 전대가 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경미 원내대표는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조직 논리에 순응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결론 아래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쓴 독일 출신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저서를 거론, “그간 황교안 후보를 아이히만 정도로 여겨왔는데 제 인식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의 발언을 포함한 한국당의 역사 역행적 입장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가며 대한애국당과 합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정치공학적 제스처로 국민 분열을 이끌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방어막을 쳤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본질이 다른 문제라는 청와대의 전날 입장파 맥을 같이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대통령의 인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며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여러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주려 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이라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전문대 졸업식 참석 ‘파격’...역대 두번째·18년만

非4년제·非국공립대 선택

“기존 틀 탈피 도전”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졸업식이 한창인 수많은 대학 중 경기도 부천 사립 전문대학 유한대의 졸업식 참석을 택했다. 현직 대통령이 전문대 졸업식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충청대 졸업식 참석에 이어 18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사례다.

유한학원은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의 창립자로도 유명한 고(故) 유일한 박사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 사회공익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 1962년 설립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유한대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젊은 기술인재들에게 응원을 보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아울러 유 박사의 삶과 철학은 문재인정부의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도 맞물려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졸업식 참석은 역대 대통령이 대부분 서울대나 사관학교, 경찰대 등 주로 국립대 졸업식에 참석한 것과 대비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이화여대, 1996년 숙명여대 등 사립대 졸업식에서 축하했지만, 이는 4년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상장을 수상한 졸업생들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에서 이번 방문과는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4년제 대학, 국공립 대학도 아닌, 아울러 서울 내 대학도 아닌 대학을 골랐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는 도전정신’이라는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축하 도중 “기성세대가

만든 높은 장벽에 좌절해 도전을 포기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누구나 평등한 기회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고 했다.

이번 언급에서는 청년 세대가 4년제 중심·서울 중심·국공립 중심의 기존 대

학 서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최근 20대 등 청년층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청년층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

‘한국당,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58%

‘포용해야’는 26%...文대통령 국정 지지도 49.9%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부대에 취해야 할 한국당의 입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단절해야 한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6.1%였다. 모름·무응답은 16.0%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경북(단절 36.9%·포용 43.8%)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포용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단절 65.8%·포용 18.7%)과 무당층(단절 45.2%·포용 16.7%)에서 ‘단절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반대로 한국당 지지층(단절 13.5%·포용 64.8%)과 보수층(단절 32.3%·포용 52.7%)에서는 ‘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 50%에 육박했으나 20대와 학생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8~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오른 49.9%(매우 잘함 25.6%, 잘하는 편 24.3%)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올라 44.4%(매우 잘 못함 26.0%, 잘못하는 편 18.4%)였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감소한 5.7%로 조사됐다. 그러나 20대에서 지난주보다 4.3%포인트 내린 41.5%, 학생층에서 4.8%포인트 하락한 38.1%로 취임 후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상반기 2-3곳 지역 상생형 일자리 추진”

李총리, 고위 당정청 회의서 밝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상반기 안에 2-3개 지역에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나오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첫발을 땀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경제주

체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안착하고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오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3월부터 지역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타결한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1호 사례다. /연합뉴스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 무산

북측 “어렵다” 공식 통보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3·1절에 개최하려던 남북 공동기념행사가 무산됐다.

통일부는 21일 “북한이 3월 1일에 하는 (남북) 공동 기념행사는 이번엔 어렵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내 이런 입장을 알리었다. 북측은 ‘시기적으로 공동행사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주된 이유

로 들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측의 이번 통보로 3·1절 100주년 당일인 다음 달 1일에 남북이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는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해 실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측은 지난해 12월부터 북측에 3·1운동 100주년 계기 공동행사와 음악회 등 기념사업 관련 제안을 전달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 등의 채널을 통해 북측의 의향을 타진해 왔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 기초부터 전문가까지 완성



법학박사 장 윤 환

- 경매전문 “범무법인 로법” 법무실장
- 조선대 평생교육원「부동산경매과정」전담교수
-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강사
- 호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전남 교육연구원 “재산관리와 생활법률” 강사

※부동산경매 더 이상 실전강의는 없다※

- 부동산경매 사고방지를 위한 관련법률(판례)
- 부동산 신증사기 대처법과 함정물건 특수분석

※수강후에도 동호회가입 지속적인 정보교류※

과 정	부동산경매 이론과실무 (기초과정 부터 전문가과정)		부동산경매 사관학교 (최고전문가과정)	
	매주 화요일	주간) 15:30~17:30 야간) 19:00~21:00	매주 목요일	야간) 19:00~21:00
수강료	15주 : 220,000원		15주 : 250,000원	
개 강	2019. 03. 05. 화요일		2019. 03. 07. 목요일	
접 수	2019. 01. 21. - 2019. 02. 27. 까지			
접수처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 http://www.chosun.ac.kr/lifelong 〉			
대 상	1.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나 자신이 없는 분 2. 부동산 관련 법률용어조차 전혀 모르신 분 3.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경매에 종사하고 계신 분 4. 경매전문가로서 더 깊은 권리분석을 원하신 분 5. 노후대책 및 업종변경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수강신청 062)230-7700~2 (인터넷신청)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871)	광주교육대학교(1971)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 2019. 3. 8.(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 2019. 3. 9.(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 2019. 3. 8.(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 2019. 3. 9.(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 강 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